



[업계소식]

◆ 기업인들 주축 '인천사랑회' 창립

이경호 영림목재(주)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인천지역사회를 위해 인천지역 기업인들이 모였다. 인천지역 기업인들을 주축으로 한 '인천사랑회'의 창립총회가 11월 지난 19일 오후 인천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렸다.

이경호 인천사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저희는 작지만, 정성을 모아 지역사회의 양지를 보존하고, 음지를 녹여 인천을 따뜻하게 하자는 취지로 모임을 시작했다”고 인천사랑회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폴리처 상이 보도·문화 부문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과정이 있기 때문”이라며 “인천사랑회도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공정사회의 등대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천사랑회의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송영길 인천시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이기인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회 회장 등 10여명의 내빈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모임의 회칙을 정하고, 이경호 영림목재(주)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조상범 인천시새마을회 회장과 심재선 공성운수(주) 대표이사가 각각 부회장과 총무를 맡았다. 문완진 일주건설(주) 대표이사와 장형기 제일유리공업(주)는 운영위원을 맡고, 김영록 (주)테크아마 전무이사는 감사를 맡았다.

◆ 용마로지스, 한국물류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물류산업 진흥 및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용마로지스(주)는 지난 11월 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10년 한국물류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27년 동안의 물류노하우와 전문성을 토대로 물류산업의 진흥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 받았으며, 특히 의약품 물류의 선두주자로서 同 산업에 대한 물류공동화, 선진화를 통하여 물류산업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보건산업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또한 용마로지스(주)는 국제물류에서부터 국내 수배송, 재고관리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기업들을 위한 Total 물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였으며, 금번 수상을 통하여 정부가 인정한 명실 상부한 종합물류 기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용마로지스(주)는 물류에 대한 선진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종합물류 역량 뿐만 아니라 해외 인프라까지 확충해 나감으로써 국내외 고객사에게 더욱 경쟁력 있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물류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 용마로지스, 일본 야마토와 MOU 체결

한·일간 물동량의 원활한 배송서비스 기대

야마토와 용마로지스는 지난 10월 1일 양 사의 네트워크 활용 및 지원을 골자로 한 MOU를 체결했다.

양 국에 특정 거점과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양사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인해 양국내로 입출하되는 물동량의 원활한 배송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제 3국으로의 진출하고자 할 경우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기로 했다.

용마로지스 해외전략팀 이철승 팀장은 "야모토와의 제휴를 통해 일본에 진출해 있는 기존 고객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국내 기업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야마토와 파트너관계에 있다는 점은 영업력 극대화하는데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야마토가 용마로지스를 전략적 제휴 파트너사로 선택한 가장 큰 배경에 대해 그는 “우리 회사의 경우 화장품과 의약품 물류분야에서 매우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만큼의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반면 야마토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화된 노하우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의 정보공유를 통해 일본 시장 내에서의 사업 확대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용마로지스, 국토부 에너지 목표관리 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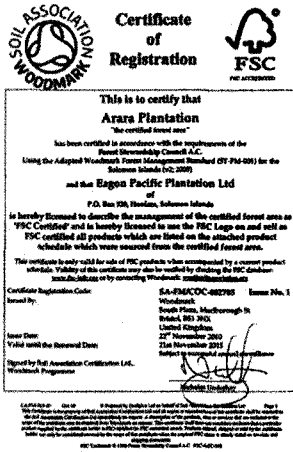
물류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녹색물류를 실천하는 물류부문 에너지 목표관리 협약식이 지난 11월 4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있었다.

물류에너지 목표관리란 물류활동에 소요되는 물류에너지의 자발적인 감축 목표량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친환경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며 사후적으로 그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국토해양부와 용마로지스, 삼성테스코, 대한통운, 한진 등 선도적 11개 업체가 물류공동화, 친환경차량 도입, 차량 대형화, 녹색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물류거점 집약화 등으로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절감 노력 등으로 국토해양부는 2020년까지 물류 온실가스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며 2011년에는 11개 업체별로 물류 온실가스 절감사업을 추진하여 배출량을 전년대비 2% 줄일 경우 연간 총 24천 탄소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견산업, 국내최초 '산림경영인증'

목재가격 15% 이상 프리미엄...경제적 자산가치 증가 기대



친환경 건축자재 전문기업 이견산업(대표이사 이춘만)은 자회사인 이견태평양조립주식회사(EPL)가 '국제산림관리협의회' (Forest Stewardship Council, 이하 FSC)로부터 최근 산림경영인증(FSC FM)을 획득했다고 12월 13일 밝혔다.

FSC FM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산림 인증 기관인 FSC가 산림자원을 환경적, 경제적으로 우수하게 경영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에게 부여하는 인증. 현재 81개국 1018개 기관에서 이 인증을 획득했으며 국내기업으로는 이견산업이 유일하다.

최근 FSC 인증은 선진국 시장 진입을 위해 갖춰야 할 기본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FSC 인증 사용 제품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으며, 비인증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견산업은 이번 인증을 통해 미국, 유럽을 포함한 국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국내는 물론, 목재를 가공해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시장에 대한 매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견산업, 건식은돌 제품 출시로 바닥난방 시장진입!



친환경 건축자재 전문기업 이견산업이 건식온돌 전문 기업 ADD 웰빙테크와 제품판매 및 영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건식온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지난 11월 29일 밝혔다.

건식온돌이란 바닥난방용 건축자재로, 일반적으로 시멘트로 마감하는 습식 난방구조 대신 배관이 삽입된 조립형 패널을 현장에서 바로 끼워 맞춰 시공하는 시스템이므로 시공이 편리하고, 공사기간이 단축되며, 시공 즉시 난방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에너지효율이 우수하여 불필요한 열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저온수로도 난방이 가능하고 현대식 바닥난방 시스템인 건식온돌을 사용하면, 보일러 가동 후 약 5~10분 후 난방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온돌 방식에 비해 난방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 두산인프라코어, 서울대 공대와 R&D협력 양해각서 체결 중장기 합동연구 및 인력교류 강화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10월 4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김용성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강태진 서울대 공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연구 및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R&D)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는 서울대에 연구 인프라 구축과 연구비를 지원하고, 서울대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연구분야와 관련한 기술적, 인적 지원을 제공

하게 된다.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연구인력 상호 교류는 두산 기술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산학협력운영위원회도 함께 구성할 예정이다.

두산인프라코어 김용성 사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중장기형 신기술 개발, 우수 연구인력 양성 등 지속적인 산학교류가 가능해져 한국 기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서울대는 두뇌한국(BK)21 연구과제를 포함한 장·단기 과제 11건과 하이브리드 굴삭기 개발 등 국책과제 2건을 협력 연구중이다. 지난 8월에는 산학강좌의 일환으로 서울대 공대 학생을 초청해 중국 굴삭기공장 방문과 상해 엑스포 참관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 두산인프라코어, 연 4천대 규모 군산 건설기계공장 준공 건설기계분야 2014년 글로벌 톱3 도약 발판 마련



굴삭기와 휠로더 등 대형 건설기계를 연 4000대 생산하게 될 두산인프라코어 군산 공장이 지난 10월 14일 준공됐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날, 전북 군산에서 김완주 전북 도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박용현 두산 회장, 국내외 딜러 및 고객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 건설기계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안정적인 생산능력 확보로 세계 최고의 건설기계 전문업체로 도약한다는 전략 아래 지난 2007년부터 총 1146억 원을 투자해 군산공장 건설을 추진해 왔다.

군산산업단지 내 61만㎡(18만평) 부지에 세워진 이 공장에서는 굴삭기 6기종, 휠로더 4기종 등 연간 4000대 규모의 대형 건설기계 장비를 생산해 낼 수 있다.

군산공장은 불량, 창고, 지게차 등 3가지가 없는 '3無 공장'을 실현한 것이 특징이다. 자동용접 설비와 공정별 이중검사 시스템으로 품질불량을 차단하고, 부품업체와 실시간 생산정보 공유로 부품재고를 없애, 창고 없는 공장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종업원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자동 운반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공장 내에서 지게차를 없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러한 공장 운영을 통해 군산공장을 글로벌 생산기지의 표준모델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삼영물류, 2010한국유통대상 물류부문 특별상 수상

물류체계 고도화 및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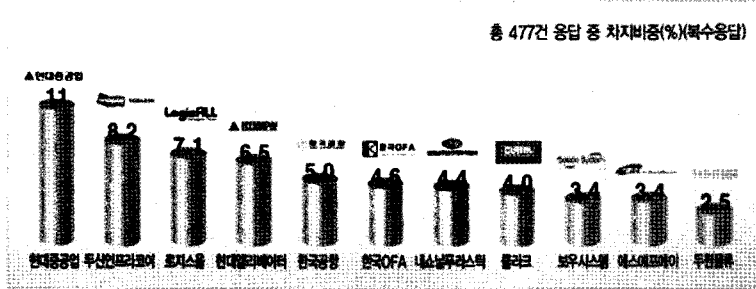
국내3PL 대표기업인 삼영물류(대표 이상근, [www. sytpl.com](http://www.sytpl.com))가 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5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에서 물류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한국유통대상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매일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국내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포상하는 유통산업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제도이다. 삼영물류는 물류혁신을 통해 유통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물류기업으로 그 공을 인정받아 물류부문 특별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을 통해 '물류를 통해 고객을 성공시키는 기업'을 업의 정의로 하는 삼영물류는 과학적 물류관리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상품 유통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유통문화 조성하였다. 또한 물류혁신전략을 통해 유통물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고도화된 유통물류 운영력으로 국가물류비 절감, 물류체계 고도화와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 2010 한국물류 누가 움직이나 - 물류자동화 설비 부문

지난해 이어 현대중공업 압도적 1위... 로지스올은 명예회복!



물류신문사에서 독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2010 한국물류를 움직이는 영향력있는 기업 - 물류자동화 설비 부문'에 현대중공업이 1위를 차지했으며, 3위는 로지스올이 차지하였다.

로지스올은 지난해 하위권에 머물던 순위를 딛고 올해 3위 자리를 차지하여 명예회복을 했다. 며칠 전 창립 25주년을 맞은 로지스올은 국내 시장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공동물류시스템을 공급하는 그룹으로 성장하고자 매진 중이며, 지난 6월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가 주최한 '제5회 APSF(아시아파렛트시스템연맹) 정기총회'에서 서병륜 회장이 2대 회장에 이어 제 3대 회장으로 재선임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 통합물류협회, 인천대 계약학과(물류시스템경영학과) 설치·운영 협약 체결

2011학년도부터 운영, 석사과정 20명, 박사과정 10명 모집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김진일 이하 통물협)는 인천대학교(총장 안경수)와 지난 11월 23일(화) 계약학과(물류시스템경영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합물류협회는 물류분야의 고급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인천대학교와 공동으로 '물류시스템경영학과'를 개설하고 2011학년도부터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학사운영은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이 담당하게 되며 모집정원은 석사과정 20명, 박사과정 10명이다. 강의 장소는 협회와 인천대학교 강의실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강의시간은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19시부터 22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장종식 상근부회장을 비롯하여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광봉환 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장종식 부회장은 "협회와 인천대학교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물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이를 계기로 많은 고급물류인력이 배출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 중국시장 진출기업 물류시스템 안 갖추면 곤란

대한상의, 중국 서비스산업 진출방안 보고서 지적

향후 중국시장에 외자기업으로 진출할 경우 공장 또는 물류시스템을 갖추지 않을 경우 경영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지식경제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50여개를 대상으로 중국 서비스 산업 5개 분야(보험, 법률, 유통물류, 교육, 광고)를 조사한 '중국 서비스 산업 현황과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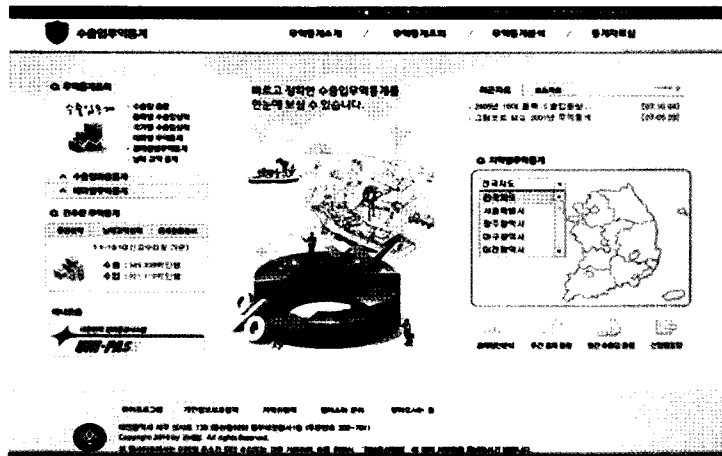
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유통분야는 개방이 가장 큰 분야로 외국자본의 중국내 법인 설립을 적극 장려하고 있어 제도적 규제는 많지 않지만 상위법과 하위법의 차이, 각 지방 정부간 정책적용의 차이, 로컬시장 진입 단계에 비제도적 장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자기업이 공장 또는 물류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식품 및 주류유통을 하는 것은 정책, 환경 등 변화요인으로 인해 경영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 관세청 무역통계 홈페이지 재구축

원하는 수출입통계를 손쉽게 조회, 다운로드 가능

관세청은 기존 청 홈페이지 내 단순 조회 기능에 머물렀던 무역통계 서비스를 사용자 위주로 대폭 개선하여 독립된 무역통계 홈페이지로 재구축했다.



가장 큰 특징은 조회화면 구성을 직관적으로 개선, 일반 국민 누구나 손쉽게 원하는 무역통계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 관세청 무역통계가 학술연구·기사작성·기업경영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세청 무역통계 홈페이지만 방문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입 및 화물에 관한 모든 통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통계 관련 발간물, 분석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원스톱으로 확보가 가능하다. 또 조회된 통계 데이터를 엑셀 형태로 다운로드하고, 화면을 인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형·막대형 차트로 조회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문서에 바로 활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 “광양항, 도로·철도 병 뚫려 항만 녹색 불”

광양항 배후수송시설 38.3km 완비, 18일 준공식



광양항 배후수송시설이 착공 17년만에 마무리돼 11월 18일 준공식을 갖게 되었다.

광양항은 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배후수송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93년 동측배후도로 착공을 시작으로 도로 4개 노선 28.7km와 철도 2개 노선 9.6km 등 17년 동안 총 1조 1천 627억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올해 배후수송시설을 완비하게 되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11월 18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김희국 국토해양부 2차관,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등 정부인사와 민주당 우윤근 의원(법제사법위원장), 공사관계자, 지역주민 등 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항 월드마린센터 앞 도로에서 준공식 행사를 가졌다.

광양항은 충분한 항만인프라 구축과 주간선항로상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물동량은 시설용량에 못 미쳤으나, 이번 배후수송시설 준공으로 광양항이 남해고속도로, 경전선 등 주요 간선축과 직접 연결됨으로써 내륙운송이 손쉬워지고 물류비용이 대폭 절감될 수 있어 향후 광양항 경쟁력 제고에 있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녹색물류 실천 위해 민·관 손 잡는다

국토부 · 12개 물류업체/단체,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협약 체결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12개 물류 업체·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물류 에너지 목표관리 협약체결』 행사가 지난 11월 4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약에는 대한통운, 한진, 글로벌비스, 롯데로지스틱스, 하이로지스틱스, 용마로지스, 한국철도공사, 차주협동조합, 삼성테스코, GS리테일, 기아자동차, 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물류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녹색물류를 실천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물류에너지 목표관리란 물류기업 및 대형 화주(제조, 유통)기업들이 물류활동에 소요되는 물류에너지의 자발적인 감축 목표량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친환경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며 사후적으로 그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국토해양부는 업체와의 첫 번째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50개 업체를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0 인천국제물류포럼 개최

세계적 석학들이 지난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10 인천국제물류포럼에 모였다.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한국항만경제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1세기 글로벌 물류도시 실현을 위한 그린물류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대한민국 예비스타 브랜드 컨벤션으로 선정된 후 처음 갖는 행사로, 포럼의 주제는 물론, 초청연사 및 규모, 국제적 인지도를 위한 해외홍보 등 향후 대한민국 대표 컨퍼런스로 자리매김할 근간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샤르자함리야 항만자유지역의 라시드 알림 청장과 일본 오사카 항만공사의 요시아키 오쿠다 사장이 기조연사로 나서는 이번 행사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의 트레버 히버 명예교수, 동 대학 교수이자 세계항공학회 회장인 엄태훈 석좌교수 그리고 중국해사대 황유환 부총재 등 국내외 물류관련 70여명의 저명인사들이 참가하게 되며, ‘세계물류환경 변화이슈’와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한 친환경 물류도시 창출’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물류거점화 전략’ 등 3개 분야의 주제발표와 토론, 나아가 국제물류산업과 향후 인천물류산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4개의 분과세션으로 진행되었다.

◆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2010년 임시총회 개최

전문성과 개방성 갖춘 조합으로 변화 위해 정관 개정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경호)은 지난 9월 29일 인천시 남동공단 소재 영림목재(주)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 앞서 충남대학교 이종신 교수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목재산업’ 주제로 참석한 조합회원들에게 특강을 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이경호 이사장은 “앞으로 목재공업협동조합이 목재산업계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개방성을 갖춘 조합으로 변화 성장해야 하며 이러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관련 정관을 개정하게 되었다” 고 설명했다. 이날 제



품 생산시설과 전문업종 면허를 가진 조합원사들의 특성을 살려 이들을 중심으로 운영분과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분야의 조합원들이 폭넓게 조합운영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임원의 정수를 현재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또한 필요시 조합 사무실을 회의장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여 조합원사에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목재가공업체들에게 선진국의 목재 산업 동향과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 접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24일부터 3박 4일간 일본 미야자키현 목재 산업 현장을 견학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전문성 · 개방성 갖추자”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경호)이 지난 9월 29일 인천시 남동공단 소재 영림 목재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금번 임시총회에서는 ‘제품 생산시설과 전문업종 면허를 가진 조합원사들의 특성을 살려 이들을 중심으로 운영분과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분야의 조합원들이 폭넓게 조합운영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임원의 정수를 현재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는 등 정관 개정을 진행했다.

또한 필요 시 조합 사무실을 회의장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 조합원사에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목재가공업체들에게 선진국의 목재 산업 동향과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오는 10월24일부터 3박4일간 일본 미야자키현 목재 산업 현장 견학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시총회에서 이경호 이사장은 “앞으로 목재공업협동조합이 목재산업계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개방성을 갖춘 조합으로 변화 성장해야 하며, 이러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관련 정관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 앞서 충남대학교 이종신 교수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목재산업’의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했다.

◆ 업계 SCM 구축지원 정책 토론회 개최

무역협회는 SCM학회와 공동으로 '국내업계 SCM 구축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12월 6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해외 SCM 구축 현황 및 전망'과 '국내 SCM 구축 실태 및 향후 정책과제' 등을 내용으로 전문가 주제발표에 이어 국내업계 SCM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정부·학계·업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었다.

특히, 주제발표 시간에는 무역협회가 국내 화주기업 2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SCM 구축 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계 SCM 구축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제시되었다.

최근 기업 경영의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선진해외기업들은 SCM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내부 및 네트워크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어 실행 중에 있으나,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은 SCM의 개념조차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국내업계 SCM 구축을 위한 정책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 한·중·일 교통물류발전포럼 개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12월 2~3일 중국 절강성 항저우에서 한·중·일 삼국이 공동개최하는 '한·중·일 교통물류발전포럼'을 열고 물류정보부문의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한·중·일 교통물류발전 포럼은 한·중·일 삼국 정부대표, 연구원 등 전문가 그룹, 업계 관계자 등 총3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국토해양부 김한영 물류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30여명, 일본 측은 국토교통성 소메야 다카이치 기술총괄심의관을 수석대표(실장급)로 하여 관계자 30명, 중국 측은 원명용 교통운수부 부부장을 수석대표(차관급)로 하여 총250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중·일간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 '환경친화적 물류 구축', '물류보안과 물류효율의 조화' 등 물류협력 3대 과제와 관련하여 4개 세션으로 나누어 한·중·일 삼국 24인의 전문가가 주제를 발표하고, 한중일 삼국간의 물류협력을 가시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